

# 고로쇠수액 맛보러 오세요

##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 11~12일 운일암반일암 삼거광장에서

올해로 13회를 맞는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진안군 주천면 운일암반일암 삼거광장에서 개최된다.

진안고로쇠 축제는 매년 봄의 기운이 만연한 경칩 전후에 실시하여 겨울철 추위로 지친 몸과 마음에 원기를 북돋아주는 마력이 있어 고로쇠수액 애호가들이 찾는 진안고원의 건강축제이다.

이번 축제는 봄이 되면 진안고로쇠가 자꾸자꾸 생각나를 슬로건으로 고로쇠 수액이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음료임을 알리고자 재미있는 체험프로그램과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했다.

고로쇠나무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고로쇠 수액 증산을 기원하는 제사를 시작으로 건강경기대회(선

착순 100명에게 고로쇠수액 증정), 고로쇠수액·막걸리 빨리마시기 대회와 고로쇠 OX퀴즈 등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맨손송아지 기제형, 고로쇠 가수왕 선발대회('자기야'의 박주희 초청), 가위뽑 바빠포먼스, 드론 비행체험, 율놀이 대회 등 관광객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 거리를 준비했다.

또한 고로쇠 막걸리와 고로쇠 두부·떡, 고로쇠 홍삼 호떡 등 고로쇠를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진안의 고로쇠수액은 해발 500m가 넘는 운장산과 덕태산 자락의 고원지대에서 자생하는 고로쇠나무에서 채취하여 당도가 높고 칼륨, 마그네슘 등 무기성분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운장산고로쇠작목반은 2015년부터 정제시설을 설치하여 고로쇠 정제기를 이용해 당일 정제하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보존성이 우수하고 고로쇠수액 유통기한 표기와 채취 농가 이력표시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장에 오면 진안고원의 믿을 수 있는 고로쇠 수액을 맛볼 수 있다.

남구현 추진위원장은 "청정지역 진안고원에서 채취한 고로쇠 수액은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위생과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고로쇠 수액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니 가족, 연인 모두가 놀러와 축제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태권도진흥재단, 기금 평가 1·2위

### 태권도 콘텐츠·프로그램 운영, 태권도원 홍보·마케팅 활동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은 201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제교류 분야 총 36개 사업 가운데 상위 10% 사업에 부여하는 '우수사업(S등급)' 4개 중 재단의 2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특히, 2016년도 기금 지원사업 평가에서 재단은 총 3개 사업이 대상인 가운데 '태권도 콘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과 '태권도원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은 국제교류 분야를 포함해 전 분야 25개 사업 중 1위와 2위의 평가 결과를 받으며 모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나머지 '태권도 해외확산화 사업'도 상위 20%인 A등급에 포함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어 '전 세계

태권도의 성지, 태권도인의 요람'인 태권도원의 긍지를 드높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재단이 이번 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태권도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태권도 단체 외에도 일반 국민들의 태권도와 태권도원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했고, 태권도의 지속적 문화적 가치 전파에 기여하는 등 태권도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재단 김중현 사무총장은 "재단은 태권도 세계화와 저변확대를 통해 글로벌 태권도 인재를 육성하고 한국문화의 세계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태권도 콘텐츠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우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장계농공단지 업체 간담회

장수군은 9일 장계농공단지 코펜스코리아(장계농공단지 협의회장 김상현)를 비롯한 8개 업체대표들과 오찬간담회 자리를 통해 군과 입주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해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개선방향을 협의하는 등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군은 접수된 애로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군은 장계농공단지를 시작으로 오는 21일, 장수농공단지, 23일에는 천천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기업 경영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진장 경계지역 농업기반 상호협력 보완사업 공모 선정

진안군은 9일 용담면, 동향면 등 무진장 경계지역 농업기반 확충사업에 7억 9,000만원(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17년 생활권 선도사업'에 진안, 장수, 무주군이 공동으로 공모하여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올해부터 2019년까지 진안, 무주, 장수 3개 군 경계지역을 대상으로 총 20억원을 들여 기초 영농기반 확충, 군간 영농기반 단절지역 보완,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신축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산림분야 근로자 발대식

무주군 산림분야 근로자 발대식이 9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녹색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근간으로 하는 산림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산림분야 종사자 등 140여 명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고 산물 및 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며 목재펠릿 원료 확보 등 산물을 수집하는데 있어 안전하게 최선을 다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산업안전기술지원센터 전문가로부터 안전관리교육을 듣고 사업장별 운영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정수 군수는 "여러분이 무주의 보배"라며 "여러분의 열정을 쏟고 역량을 발휘해 산림 무주의 명성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지역발전·농가소득 위해 손잡아

### 국유림관리소와 '국민의 숲' 협약 체결... 설천면 대불리 국유림 활용키로

무주군과 무주국유림관리사무소가 지난 9일 설천면 삼도봉 권역센터에서 '국민의 숲' 협약을 체결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삼도봉권역 마천·대불리지역의 산촌 소득지원이 부족함에 따라 지역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주도한다는 취지에서 산림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추진한 것이다.

협약식에는 황정수 무주군수와 김종세 무주국유림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과 이상수 의원, 그리고 마을대표와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두 기관은 설천면 대불리 산 38-1번지 일원(국유림)을 숲의 질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키로 하고, 무주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숲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시설 및 편의 제공하고 산림의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마을주민들을 지도·감독해 나갈 것을, 무주군은 국민 숲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관리,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치 등을 행할 것을 약속했다.

황정수 무주군수는 "국유림과 사유림을 기반으로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기대가 크다"며



무주군과 무주국유림관리사무소가 지난 9일 설천면 삼도봉 권역센터에서 '국민의 숲' 협약을 체결했다.

"무주군과 국유림관리사무소와의 협력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과 힐링체험, 소득증대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군과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이날 협약을 토대로 현지 주민들과도 국유림 보호 협약을 체결해 산나물과 산약초, 버섯, 고로쇠 수액 등 임산물을

합법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민주지산 삼도봉권역 국유림도를 활용한 데저·스포츠 길로 운영하는 한편, 봄철 조림사업을 통해 소득 수준을 심어 단체의 숲을 운영하고, 민주지산과 석기봉, 삼도봉을 연계한 등산코스를 보완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완주군 '찾아가는 귀농귀촌 정책설명회' 인기

완주군은 지난 8일에서 9일까지 이틀간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전라북도 귀농어귀촌 서울센터에서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귀농귀촌 정책설명회'를 추진, 호응을 얻었다.

'대한민국 로컬푸드 1번지, 농토피아 완주'라는 주제로 실시한 이번 설명회에는 수도권 예비귀농귀촌인 100여명이 모여 새로운 귀농귀촌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완주군의 인기를 실감하게 됐다.

완주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완주군 농촌활력정책 및 귀농귀촌 지원사업 설명, 귀농귀촌 사례발표 등을 진행했다.

특히 '섬미네농장' 이선미 대표의 '귀농! 로컬푸드에서 답을 찾다'와 '구암 현미쌀 두부' 김민 대표의 창

업사례발표는 예비 귀농귀촌인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강광석 농업농촌식품과장은 "수도권 도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귀농귀촌 정책서비스와 홍보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설명회 운영으로 역량있는 도시민을 유치해 활력 넘치는 완주군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2015년 1269세대, 지난해 1614세대 등 매년 증가하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여 올해부터 거주하면서 체계적인 영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기존 13개소인 귀농인의 집을 16개소로 확대 추진하는 등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최우선 목표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군, 대둔산 등산로 일제정비 실시

완주군이 연간 60만명의 탐방객이 찾는 대둔산 도립공원의 등산로 및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탐방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9월 군에 따르면 대둔산은 등산로의 경사가 심해 등산로의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이 지속적으로 요구돼왔다. 이에 군은 총 사업비 2억 3,200만원을 투입, 등산로의 정비 및 안전시설의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편의시설인 먼지탈이(4구) 1대를 대둔산 구매표소 입구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기반시설로는 파손되고 채색된

안내표지판 5개소 및 이정표 5개소 정비, 삼선바위 주변 등산로 정비(30m), 용문굴 위험구간 안전난간 250m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등산로가 계속될 때 행성쇄낙석 및 호우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한 용문굴의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우회 등산로 60m 조성해 탐방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즐거운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달 7일까지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한 만큼, 앞으로 원가심사 등을 거친 뒤 3월 중순경 착공해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E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E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E | 750ml 1ea/12%

GIFT SET 4E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E | 375ml 5ea/13%

GIFT SET 6E | 500ml 향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 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8960  
www.gansanwine.com